제2강 생명운동의 전개와 역설의 미학

(1교시)

1. 한살림 등 소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생명운동으로, 이 독특한 협동 운동은 상당 정도 커뮤널리즘(communalism), 공동체 운동으로 갔으나 점점 후퇴하기 시작한다. 이상적인 모델로 각광받던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유명무실해지고 그 대신 개별적인 생산량, 생산조건 등을 인정하고, 교환에서 있어서도 다층위적인 여러 형태의 교환을 인정하는 운동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새 길을 찾아야 하는데 협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다.

고대 동아시아에 있었다는 신시(神市)는, 교환시장과는 다른, 인격교환 형태로서 상호 혜택의 시장경제인 '호혜시장'이다. 이것은 아프리카 서북부, 페르시아, 실크로드를 따라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었다. 신시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계모임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공동체 이상의 우정이 생기고 분권적인 결의가 있게 된다.

붉은 악마나 촛불 시위는 환원주의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자기조직화, 또는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는 퓨전으로 해석해야 된다. 1999년 세계무역기구를 비난하며 시애틀에서 시작한 세계적인 시민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인격교환 형태로서의 생태계와 신령한 존재에 의존하는, 그러면서도 우정으로 물물교환을 하는 호혜시장, 신시, 계,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보자.

2. 생명민회 운동

'생명민회'는 '생명의 가치를 사랑하는 민초들의 모임'의 줄임말. 생명운동의 정치적 형태로는 처음 나타난 것. 자치민주주의, 생명민주주의 등을 제기했고, 지역통화도 시도했다. 분권적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연료, 에너지 문제도 많이 나왔다. 지금은 명맥은 유지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워졌다.

크게 두 축으로, 미시적 수준에서의 생활양식 변화 운동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으로 거시적 수준에서의 패러다임 변형 운동, 삶의 원형 및 준거 변화 운동이 있었다.

3. 종교단체들의 생명운동

최근 종교계-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에서 삼보일배 운동이나 생명과 평화 운동 등이 활발하다. 이것은 아마도 새로운 문명에 대한 요구일 것이다. 전 지구적인 생태계 오염을 정화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화, 인간 내면의 도덕적 의식의 평화, 인간의 영적 평화, 산업 평화, 또한 민족과 민족, 문명과 문명 사이의 평화. 이것은 아직 추상적이지만, 그만큼 미래에 새로운 문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1990년을 분기점으로 종교단체들이 환경, 생명, 생명의 평화 운동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정치, 무대정치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4. 생태지역성 운동

생명 전체의 '단위' 문제: 생태지역성, 또는 생물지역(bioregion). 옛날에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 생김생김과 성격이 서로 비슷했다고 한다. 나무, 풀, 동물들도 서로 공생

www.artnstudy.com

적 상부상조 관계에 있는 사슬들이 더 강했다. 이것을 풍수론에서는 형국론(形局論)이라고 한다. 한반도도 크고 작은 것들이 겹치면서 여러 개의 형국으로 나뉜다. 이것이 생태지형이고 생물지역인데, 여기에 기초를 두고 지역자치제와 지역정치제의 분할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자치 단위의 문제가 논의될 때 생명, 생태, 형국의 문제가 고려되었으면 한다.

생명정치가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정의냐, 자유냐' 나도 아마 자유론 쪽일 것이고, 유럽도 자유론적인 생명정치 이념으로 흐르는 것 같다. 자유론적 생명정치학은 대개 무정부주의가 강한데, 영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도 있다. 자유의 문제는 지금도 논의하고 있고, 계속될 것이다.

※ 문순홍 논문 일부

김지하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생명운동은 현재 환경문제를 그야말로 환경에 국한된 문제의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 이보다 환경문제는 새로운 문명의 전환을 알리는 징후들인 것이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미지적이고 이 미지에 대처할 수 있는 운동은 새로운 생명의 문명을 준비하는 혁명적인 후천개벽 운동이다.

'후천개벽'은 원래 주역의 용어로, 후천개벽이 운동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1860년 경주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이 하늘로부터 이 인류의 우주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계시를 받으면서부터이다. 5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e sapiens sapiens)', 즉 생각을 생각하는 인간이 태어났다고 한다. 생각을 생각할 때 언어의 발생이 가능하고 이것이 문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인식의 시작이다. 이 이후 최대의 전환운동이 바로 후천개벽 운동이다.
인간이 자기의 생각을 생각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간이 자기 안에 신을 모시는, 신의 능력까지도 수련에 의해 모시게 되는 바로 그런 전환이다. 이것은 동학에서 시작해서 김일부의 정역으로, 1901년에서 1909년 사이에 활동한 강증산의 후천개벽, 이른바 천지공사 운동에까지 전개된다.

이런 까닭에 환경파괴는 생명 위기의 한 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지구적 또는 지역적 자정능력 파괴로서의 환경문제만 다루는 현재적 수준의 환경운동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환경문제를 인간을 뺀 자연에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이보다 그 권역이 더 넓다. 최소한 환경문제는 자정능력 문제이기 위해서 자원문제, 식물들의 서식지, 지구 물리적 환경을 다루어야 한다.

생명과 지구 전체의 문제를, 삶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운동은 우선 문화운동으로 출발해야 된다. 문화운동으로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보를 고치는 것이다.
동학에서 말하는 모심-모든 생명을 모심, 산 것을 산 채로 모심. 즉 모셔야 살릴 수 있다. 귀중한 생명이 부패하는 것을 모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보고 그냥 놔둘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심과 살림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모심은 탁월한 미학적 개념이다. 서구적인 미적 의식, 서구적인 감상태도는 수평적 대좌관계이다. 때문에 유럽의 생태학 사상들, 생태 사회주의, 생태 마르크시즘에서는 자연과 생명

www.artnstudy.com

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다.
수평적으로 보되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수운 최제우의 동학이다. 동학에서는 모심에 대해서 말한 뒤에 가장 유명한 천(天), 하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늘을 무규정 상태로, 즉 허, 공, 자유로 놓아두고 그냥 '천주(天主)'라고 한다. "임으로 높여 불러서 부모처럼 친구 사귐" 동학을 신봉했던 많은 농민들이 이렇게 이웃과 가족을 대했고, 동식물은 물론이고 밖에서 일하는 연장까지도 이렇게 높여 봤다고 한다.

인간과 우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내면 사이의 관계를 동학에서는 '사(事)'이면서 '동사(同事)'라고 한다. '사'는 '사대주의(事大主義)' 할 때의 '사'로, 큰 것을 모시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동사'는 같은 일에 종사하는 뜻이 같은 친구를 말한다.
중국의 『예기(禮記)』「예운」편: "민지풍우(民之風雨)." : 백성의 바람과 비
백성이 우주의 바람과 비와 같은 현상을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사'이다. 상층, 우주를 모방하는 것이고, 높임이다.
동시에 동사가 있다. "비정비팔(非丁非八)." : 모둠발도 아니고 벌림발도 아님
즉 상체춤과 하체춤이 인물 사이에서 대비되면서 동시에 한 동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사와 동사 사이에는 틈이 있다. 이 틈이 개성적 해석의 차이이다. 자기가 어떻게 자기 몸에 맞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춤은 알아주질 않는다. 제 몸에 알맞지 않으면 비정비팔, 민지풍우가 아무 소용없다.
그늘은 마치 제 춤처럼 자기만이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늘이란 말 그대로 인생의 신산고초, 단맛, 쓴맛을 다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윽한 무엇이다.

수리성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창법에서는 껄껄한 소리를 최고로 치는데, 이런 소리만이 슬픔과 기쁨, 웃음과 울음, 저승과 이승, 남자와 여자, 너와 나 같이 대립된 것들을 한꺼번에, 또는 계기적으로, 또는 엇섞어서, 또는 뒤집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천신만고,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마음을 다 표현해낼 수 있다. 그늘이 없으면 소리를 쳐주질 않는다. 제 춤이 아니면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개성이다.

(2교시)

"'사'이면서 '동사', 모시되 친구, 임으로 모셔서 부모처럼 섬기되 친구처럼 사귄다."
미학은 원래 역설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반드시 미와 추의 교차를 경험한다. 추를 버리지 않으면서 미로 가고 미를 버리지 않으면서 추로 가는 체험이 미학적이다. 그래서 숭고가 있고 비장이 있고 심오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혼돈된 감수성의 산물이다. 추의 계기가 없이는 숭고가 나올 수 없다. 아주 거룩한 것은 아름답지 않다. 그러나 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둘이 혼돈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높이되 친구처럼 사귀는 것이 무엇인가. 미적 대상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는가. 너무 높이기만 하면 그것은 종교적 감수성이 된다.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 현실의 신체적인 감각 체험, 몸 체험이 미적 체험이고, 그 원리가 사이면서 동사이다. 이 동사는 한국의 민중예술에만

www.artnstudy.com

나오고, 중국의 민중예술에서는 볼 수 없다. 사는 중국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와 한국의 동사가 역설적으로, 이중적 교호결합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심이고, 이것이 미의 가장 중요한 차원이다.

'살림'은 '있음'의 반대이다. 존재, '있음'은 '죽음'이다. 살아있음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미학이다. 살림이란 죽는 것까지도 살아있게 하는 살림이다. 종교적 표현으로는 '계시'과정을 통해서 온다. 살림은 모심 다음에 중요한 미적 법칙이다.

'흰 그늘'에서 '흰'이라는 것은 붉, 흔, 우리말에서는 '신', 신성한, 빛, 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신성한 것, 특히 영적인 것, '아우라'라고 볼 수 있다. 고통과 기쁨, 웃음과 울음, 여성과 남성, 이승과 저승, 이런 것들이 엇섞인 것이 그늘이다.
모름지기 예술이란 그늘과 '시김새'가 있어야 한다. 그늘론은 한(恨)과 연결된다. 깊은 한을 누르고 이겨서 삭혀야만 그늘이 된다. 소리에서는 이것을 '시김새'라고 한다. 좀 더 깊은 예술은 삭여야만 나온다. 그늘은 바로 비흥(比興), 흥비(興比)의 미묘한 각비(覺比)의 영역이다. 그러나 요즘은 삭힘 보다는 '풀이' 쪽으로 가는 경향이 강하다.

'고리', 즉, '환(環)'은 시간으로서는 처음과 끝이 있으면서 동시에 없는 '始終'으로서 이른바 '판'의 미학적 상징이다. 끝나는 곳에 이미 새로운 시작이 있는 '始終'의 시간관을 통해 새로운 미학적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www.artnstudy.com